

| 임은정 선생님의 신나는 책도락

# 물들숲 그림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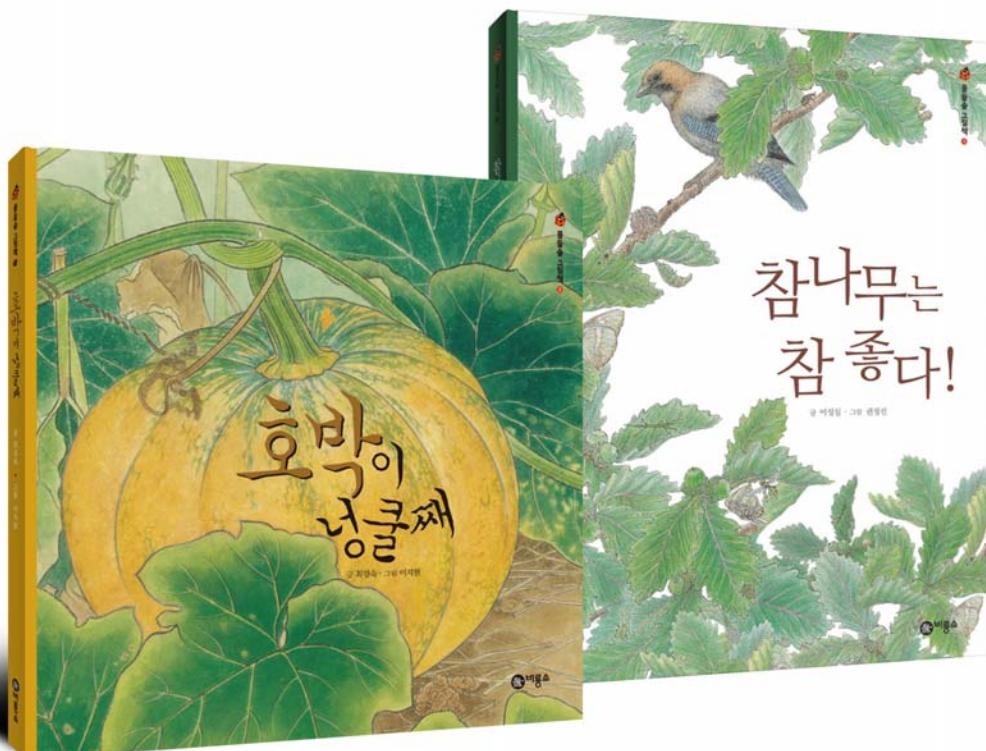
① 참나무는 참 좋다!

② 호박이 넝쿨째

##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최재천 교수 추천!

『물들숲 그림책』은 친근하면서도 사실적인 그림 덕택에 책을 읽는 내내 자연의 품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. 이 책을 읽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자연에 대해 보다 많이 알게 되어 더욱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.

– 최재천 (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, 자연사박물관 관장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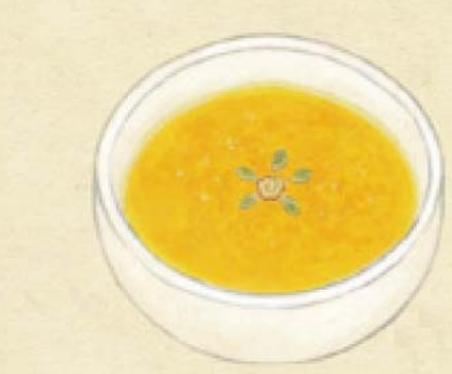
♣ 처음엔 작은 씨앗이었대요!

아름드리 참나무와 샛노랗고 탐스러운 호박도 처음엔 작은 씨앗이었대요. 참나무와 호박의 씨앗은 어떻게 생겼을까요?  
참나무와 호박의 씨앗을 아래의 빈칸에 그려 보세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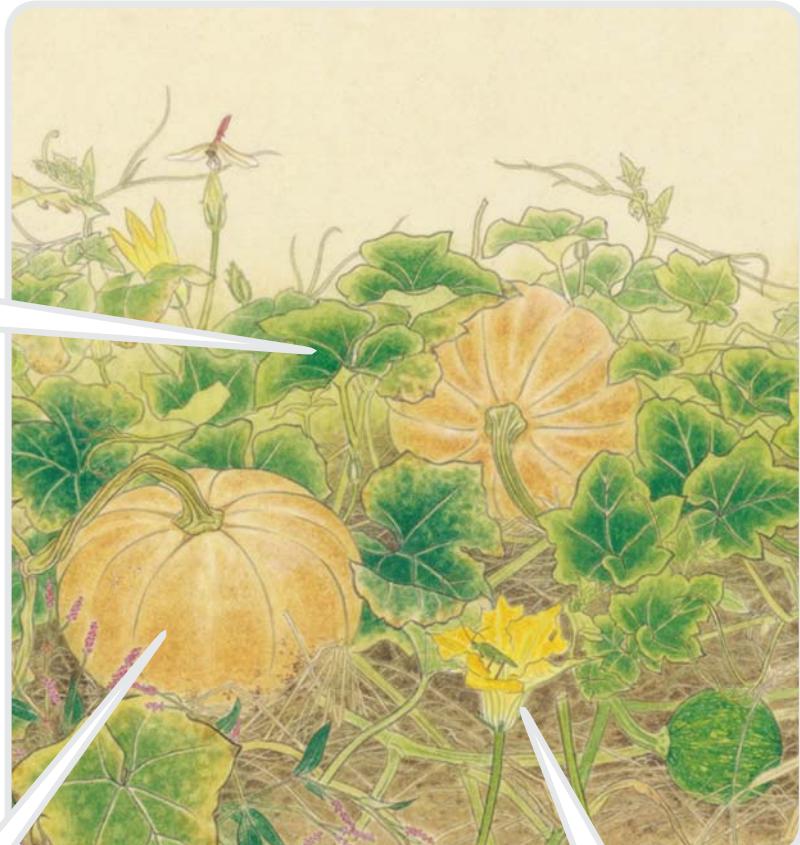
## ♣ 호박의 봄, 여름, 가을, 겨울!

농부 아저씨가 밭에 호박씨를 심었어요. 이제 호박씨는 어떻게 변해 갈까요? 호박의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잘 살펴보고 각 계절마다 호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.

	그림	호박이 한 일
봄		
여름		
가을		
겨울		

## ♣ 호박은 이래서 좋아요!

- 호박은 줄기부터 이파리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. 책을 잘 살펴보고, 호박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지 알아보아요.



- 호박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먹일 수는 없어요. 호박을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여러분만의 호박 요리법을 알려 주세요.

## ♣ 참나무의 봄, 여름, 가을, 겨울!

참나무는 사계절을 어떻게 날까요? 계절에 따른 참나무의 모습과 알맞은 설명을 연결해 보세요.



봄

- 비늘잎으로 겨울눈을 싸서 새로 돌아날  
잎과 꽃을 보호해 줘.



여름

- 곱게 물든 잎과 잘 익은 도토리 들을  
떨어뜨려.



가을

- 줄기와 가지를 키우고 잎도 넓게 자라.  
양분을 모아서 도토리에게 보내 주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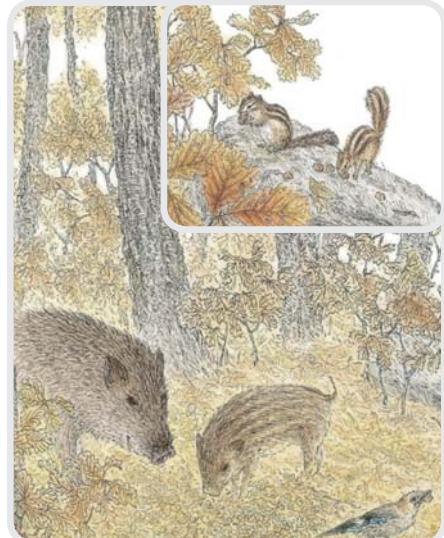


겨울

- 겨울눈을 부풀려 비늘잎을 벗고 꽃을  
피워. 꽃가루가 암꽃에 닿으면  
도토리가 자라기 시작해.

## ♣ 참나무는 참 좋은 친구야!

숲 속에 사는 동물들은 참나무를 참 좋아한대요. 어떤 동물들이 참나무를 좋아하는지 알아보고, 그 이유도 들어 보세요.



- 누구?

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등 여러 곤충들

• 참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!

- 누구?

딱따구리와 도토리거위벌레 등 여러 새와 벌레들

• 참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!

- 누구?

다람쥐와 멧돼지 등 여러 숲 속 동물들

• 참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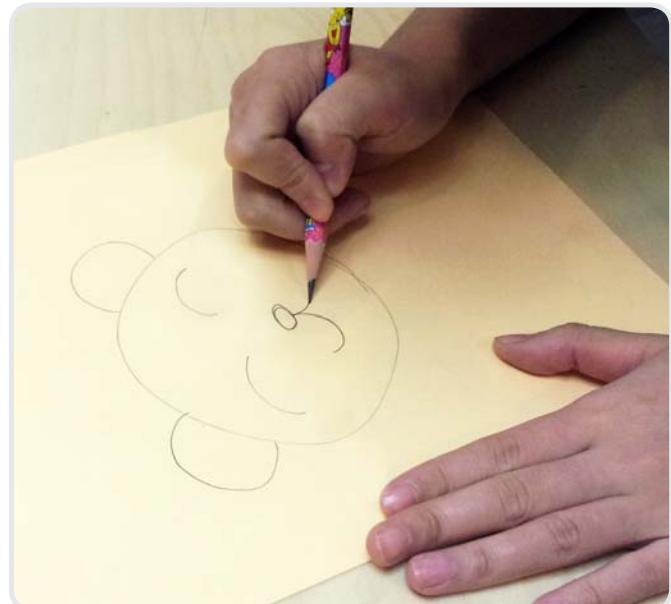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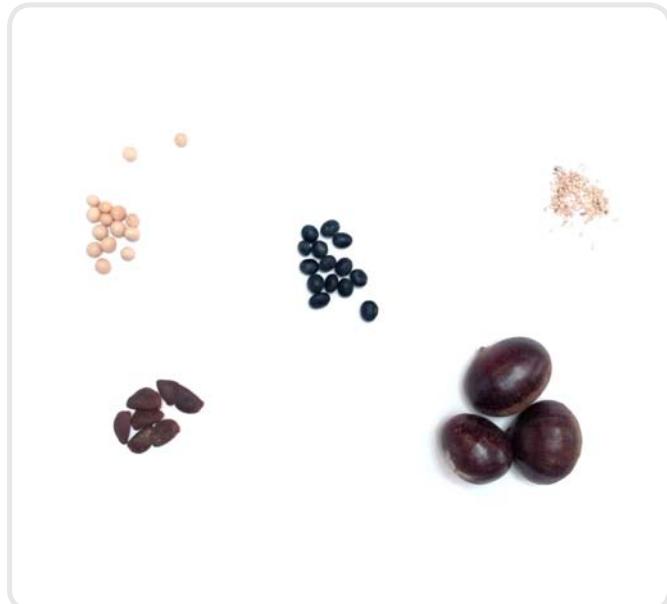
• 참나무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?

## ♣ 씨앗을 모아 보자!

호박씨, 도토리, 콩(검은콩, 완두콩, 강낭콩 등 다양한 콩), 팥, 깨(검은깨, 흰깨, 들깨 등 다양한 깨) 등 다양한 씨앗들을 이용해서 멋진 그림을 만들어 보세요.

준비물 : 다양한 씨앗들, 두꺼운 도화지(또는 골판지), 목공용 풀(또는 양면테이프), 연필

〈그림 그리는 방법〉



① 다양한 씨앗들을 색깔과 모양별로 준비해요.

② 종이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요.



③ 밑그림 위에 여러 가지 색깔의 씨앗들을 붙여요.



④ 완성!

\* 씨앗을 붙일 때 목공용 풀을 이용하면 밑그림이 가려질 수도 있어요.  
그럴 땐 투명한 양면테이프를 대신 사용해도 좋아요.